

Kodex^{ETF}와 함께 만드는 Viewtiful Week

조수민 책임매니저
Vol.8 2024.11.26

Executive Summary

- 엔비디아 피크아웃 우려로 AI 테마 내에서도 차별화 진행
- 어닝 시즌 후반부 진입으로 통화 및 재정 정책 민감도 상승할 전망: 26일 의사록 주목
- 트럼프 2기 내각 인선 마무리로 탄력 받는 경기 낙관론: 중소형주 로테이션 강화 유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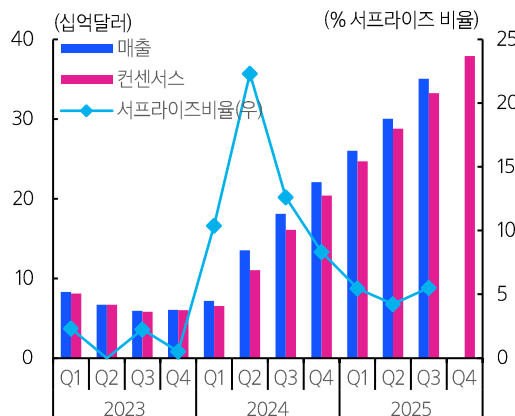
●●● 이번 주엔 무엇을 볼까

중소형주 로테이션 강화 지난주 뉴욕 3대 지수는 강세 마감했다(다우 +2.0%, S&P 500 +1.7%, 나스닥 +1.7%, 22일, Bloomberg 기준). 트럼프 2기 내각 인선이 빠르게 진행되자 경기 낙관론이 강화되며 러셀 2000(+4.5%)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. 12월 금리 동결 확률이 상승하면서 미국채 2년물 금리는 7bp 상승해 4.37%를 기록한 반면, 10년물 금리는 전주비 4bp 하락한 4.40%를 기록했다. 달러인덱스는 미국 예외주의 강화 여파로 107.6으로 마감했다.

AI 테마 내 차별화 진행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은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며 9개 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[그림 1]. 다만, 4분기 매출액 가이던스 하단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됐다. 매출총이익률(GPM)이 2개 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하락한 점도 매도 압력을 자극했다. 블랙웰 양산이 궤도에 오르면 매출총이익률이 70%대 중반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으나, 시장은 이익 모멘텀이 둔화되는 점을 주목했다. 반면, 세일즈포스 등 B2B 기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AI 테마 내에서도 차별화가 진행됐다. 한편, 법무부가 알파벳에게 크롬에 대한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등 빅테크 관련 약재들로 M7은 제한된 상승을 시현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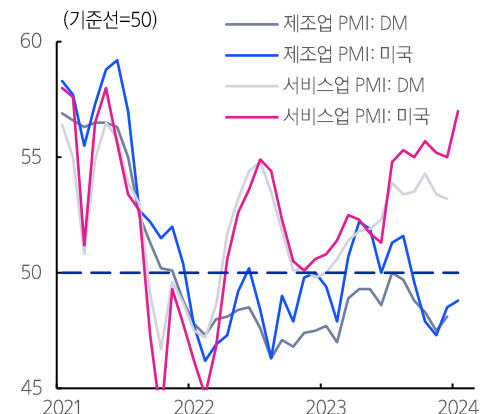
12월 금리인하 전망 변화 발생 여부 확인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FOMC 의사록(26일, 현지시간)과 한은 금통위(28일)로 이동할 전망이다.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재확인될 경우 12월 금리 동결 확률(44.1%)이 금리 인하 확률(55.9%)을 앞지를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. 27일 공개되는 3분기 GDP 수정치와 10월 PCE도 확인 대상이다. 미국 경기 낙관론이 강화되면서 미국 예외주의가 고조되고 있어 다음 달 초 ISM 제조업 PMI 발표에 앞서 공개되는 지역 연은 제조업 PMI(26일 리치몬드, 27일 시카고)에도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[그림 2].

[그림1] 엔비디아 매출: 실제 vs. 컨센서스



※ 주: FY기준
※ 자료: Bloomberg, 삼성자산운용

[그림2] S&P 500 마켓 PMI 추이



※ 주: 미국 11월 수치는 예비치(P)
※ 자료: Bloomberg, 삼성자산운용

●●● 삼성 Kodex Vie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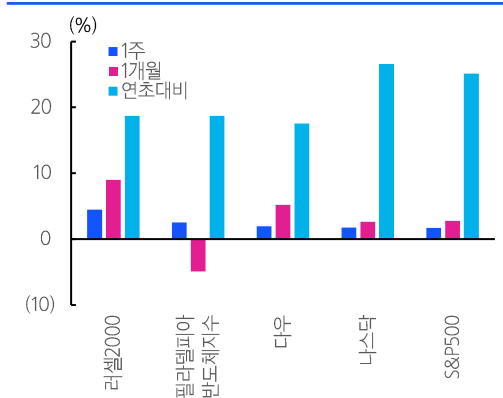
속전속결 2기 내각 인선
통화정책 불확실성 ↑
재정정책 불확실성 ↓

경기 낙관론 강화 시
상승 폭이 확대될
지수/업종으로
선별적으로 접근

어닝시즌 후반부 진입으로 이익 민감도는 낮아지고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영향력이 재차 높아질 전망이다. 전 해지펀드 매니저 출신 스콧 베센트를 재무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 당선에 확정된 지 17일 만에 '충성파'를 중심으로 트럼프 2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. 트럼프 정책이 힘이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강화되는 이유다[그림 3]. 한편, 스콧 베센트는 파월 의장을 여러 차례 비판하며 '그림자 연준 의장' 방안까지 제안한 인물로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. 반면, 재정적자는 GDP의 3%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재정 적자 확대 우려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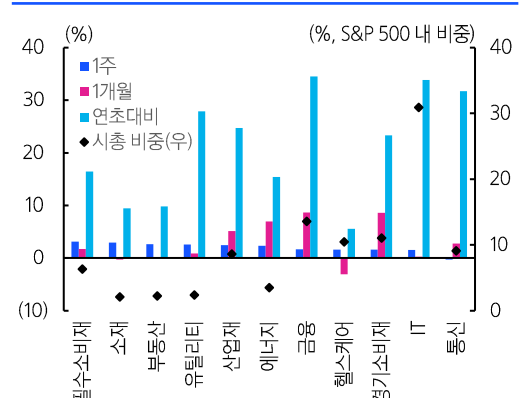
이번 주 후반 예정된 쇼핑 시즌 결과도 관심 대상이다. 10월 소매판매에서 내구재에 해당하는 전자제품과 자동차 관련 소비가 전월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. 기준금리 인하로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적용 금리가 낮아지면서 소비 여력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. 추수감사절(28일)과 블랙프라이데이(29일)에서 견조한 소비가 확인될 경우 경기 낙관론이 강화되며 경기민감업종/중소형주로의 로테이션이 강화될 수 있다. 이들 업종 및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지수 상승을 견인하기 어렵다[그림 4]. 즉, 러셀 2000과 같은 중소형주나 경기민감주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.

[그림3] 미국 주요 지수 수익률



※ 주: 11/22 기준
※ 자료: Bloomberg, 삼성자산운용

[그림4] S&P 500 업종별 수익률



※ 주: 11/22 기준
※ 자료: Bloomberg, 삼성자산운용

●●● Viewtiful Week를 위한 삼성 Kodex ETF 3

01 Kodex
미국러셀2000(H)
(종목코드:280930)

미국 중소형주(시가총액 1,001~3,000위)에 투자하는 대표 ETF

- 미국 총 GDP의 70%를 차지하는 내수 소비를 책임지는 중소형주에 모두 투자
- 주요 투자대상: FTAI Aviation, Sprouts Farmers Market, Vaxcyte 등
- 합성총보수: 연 0.5544%, FY2023 기준 증권거래비용 0.0899% 발생, 위험등급: 2등급(높은 위험)

02 Kodex
미국나스닥100
데일리커버드콜OTM
(종목코드:494300)

나스닥100 데일리 1%OTM 콜옵션 100% 매도 전략 월배당 ETF

- 매일 1%까지 시장 상승 참여 + 옵션 프리미엄 수취 추구
- 연간 분배한도 최대 20%(월간 1.67%), 옵션 프리미엄 분배한도 초과분은 재투자
- 총보수: 연 0.25%(운용 0.219%, AP 0.001%, 신탁 0.02%, 사무 0.01%), 위험등급: 1등급(매우 높은 위험)

03 Kodex
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
(종목코드:441640)

미국 우량 배당성장주 투자와 종목 커버드콜 전략을 구사하는 ETF

- 미국 운용사 Amplify의 대표 상품인 DIVO를 국내 투자자 성향에 적합하도록 업데이트
- 주요 투자대상: VOO, DIVO, SPY, Caterpillar, United Health 등
- 합성총보수: 연 0.3031%, FY2023 기준 증권거래비용 0.1581% 발생, 위험등급: 2등급(높은 위험)

※ 삼성자산운용, 2024년 11월 26일 기준 ※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※ 상기 내용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,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,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,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,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,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,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, 보수,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-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.
-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되며,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-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
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